

# 몸살 앓는 일본 레미콘 산업

李 日 求

〈雙龍洋灰레미콘 營業部長〉

## 머 리 말

레미콘은 그 품질의 정확성·균질성과 신속성·간편성 등에 따라 그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레미콘의 공급원 또한 우후죽순처럼 확산됨으로써 업체간 과당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품질관리상 문제 등이 대두되기도 한다.

때마침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일본의 레미콘업계를 돌아 볼 기회가 생겼다. 비록 주말간산격의 시찰이었지만 선진국 업체의 현황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 평가할 호기로 여겨져 시찰을 통해 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 몸살 앓는 업계

일본의 레미콘 업계는 한마디로 말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지난 수년에 걸친 일본 경제의 저성장에 따라 수요가 크게 위축, 공동 판매사업이 붕괴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과잉설비를 폐기하여 조업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신규설비가 끊임없이 이어짐으로써 설비과잉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소한의 생산설비 투자규모는 약 3억엔으로 투자단위가 비교적 적은데다 연불금융의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자

재·인적인 면에서도 장애요인이 거의 없는 반면 일본의 경제체제가 자유경제를 견지함으로써 신규참여를 억제할 합법적 수단마저 결여되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모두 함께 불사의 도가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일본의 레미콘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발자취를 간단히 더듬어 보자.

## 조직의 연혁

1949년 태동된 일본의 레미콘 업종은 1953년 JIC(일본공업규격)를 제정, 일찌기 품질관리에 눈을 뜬 후 레미콘이 지닌 상품적 특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지역별 단체(협회 또는 조합)를 조직 운영하다가 1967년 통산성의 전국단체 조직화 요청에 의해 그 이듬해 21단체 506개사가 참여한 「전국레미콘 사업자단체연합회」와 10개 협동조합이 참여한 「전국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통산성은 협회를 공업조합으로 개편토록 유도하여 사업자 단체연합회를 「전국레미콘 공업조합연합회」로 재설립하였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레미콘업체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자 통산성은 1976년 레미콘산업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레미콘산업 근대화 방안을 제시, 「레미콘 근대화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 조직은 공업조합연합회가 주도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참여조합수는 모두 43개로 조직화가 완료된 싹집이기도 하다.

그뒤 근대화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78년 양대 연합회는 합동총회에서 합병키로 의결, 조직의 일체화를 완성하였다.

## 유통실태

일본의 레미콘 생산체제는 통산성까지 개입하여 일체화를 이룩하였지만 유통구조는 복잡다단하기 이룰데 없다.

유통실태를 대별해 보면 ▲조합을 통한 공동판매 ▲생산자와 수요자의 직거래 ▲중간판매업자(시멘트특약점·건재상·총합상사 등)에 의한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판매를 맡고 있는 조합이 중간 판매업자에게 거래를 의존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들을 통한 거래는 레미콘 전체 거래량의 65%선에 달하고 있어 레미콘 유통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중간 판매업자의 판매수수료가 약 5%로 책정돼 있어 생산업체의 수익성 저하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자금력이 풍부한 중간 판매업자들은 직·간접으로 레미콘업체에 투자,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유통구조상 이들의 개입을 배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불실의 요인들

이상의 조직형성 및 개편과정과 유통실태를

통해 우리는 일본 레미콘업체가 불실의 와중에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인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수요감퇴 ▲영세업체의 난립 ▲유통구조의 복잡 ▲과잉설비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이 과당경쟁과 수익성 저하를 유발시키고 결국 업체를 불실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불실요소들은 장기간을 거치면서도 왜 제거되지 않는가. 답은 간단명료하다.

수요감퇴의 요인은 일본의 저성장과 선진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충실로 신규수요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유통구조의 복잡은 오랜 세월동안 레미콘업체가 생성·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돼 버린 고질병으로 볼 수 있겠다. 이밖의 요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경제체제하의 일본경제 정책상 신규사업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의 설립조건을 보더라도 협동조합의 경우 일정 지구내의 4개사 이상 레미콘업체가 합의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공업조합의 경우는 행정구역 단위내의 사업자가 5이상 참여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단체제도의 허실

협동조합과 공업조합은 그 기능상 역할과 목적이 각각 다르다. 협동조합의 경우 공동 판매사업이 주업무인데 조합원이 생산한 레미콘을 일괄 구매하여 수요자에게 일괄 판매하는 판매



北海道大學 寒中 콘크리트 試驗場에서, 右側 첫번째가筆者.

카르텔 형태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협동조합이 현행 독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가능하다. 공업조합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합리화 추구사업을 벌이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를테면 현재 37개의 공업조합은 통산성 및 연합회의 지도 아래 레미콘산업 구조개선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자 단체들의 이같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본 레미콘업체가 계속 궁지로 몰리는 것은 우선 공동판매제도상 조합원별 실적 및 설비능력에 따라 판매량이 배분돼 적은 수요규모에 비해 한 배분량에 불만이 클 뿐 아니라 조업률도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파이가 크면 나누어 먹는 몫도 커지고 작으면 몫도 줄어든다는 「파이의 경제」 모델인 셈이다. 또 시설의 공동폐기제도 역시 끊임없는 신규업자 탄생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동수송제도는 조합 및 조합원이 이미 지역별로 산재돼 있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품질관리제도는 공업조합 43개중 41개가 품질관리 감사제도를 엄격히 시행, 수요층의 신뢰를 받고 있어 거의 문제가 없다.

## 설비 및 재료상황

일본내 모든 공장중 95%는 고정식 믹싱이며 나머지 5%가량이 미니플랜트형식의 이동식 믹싱이다.

제량설비는 미니플랜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이 전자동식 개별제량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배합설정은 편치카드에 의지한다.

배치플랜트의 원료투입 및 배출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데 특히 제량, 믹싱, 적재, 출하 등의 작업은 모니터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집중 원격조작하는 공장이 많다.

최근엔 미니컴퓨터와 마이크로컴퓨터를 활용한 운전시스템이 발달돼 재료의 수입과 불출, 배차, 출하관리, 전포처리, 계약정리, 대금지불 업무 등을 이에 의존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다.

조합사무소와 조합원공장을 컴퓨터로 연결, 통신회선에 의한 온라인시스템으로 각종 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방법도 널리 채용되고 있다.

주재료인 시멘트는 일반적인 포틀랜드시멘트가 주종(85%)을 이루고 있지만 이밖에 조강시멘트, 고로시멘트, 후라이애쉬시멘트도 사용된다.

시멘트가격은 지방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동경 공장도를 기준할 경우 톤당 약 1만4천엔(56달러)으로 시멘트제조업체의 희망가격 1만5천5백엔(약62달러)보다 낮은 선에서 거래된다.

시멘트업계는 기업수지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따라 시멘트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 맺는 말

일본의 레미콘산업에 대한 실정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일본의 레미콘 산업을 계량화해 보면 1983년 기준 ▲생산업체 4,589개사 ▲생산공장 5,126개소 ▲생산능력 800,612천 $m^3$  ▲소비실적 145,878천 $m^3$  ▲전환률(82년) 67.3%로 그 규모면에선 거의 절정에 올라 있으며 전환률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그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도 힘에 겨울만큼 낙후된 면이 없지 않다. 참고로 쌍용레미콘이 업무자료로서 활용키 위해 직접 조사한 우리나라의 레미콘산업 현황을 소개하면 1983년 기준 ▲생산업체 38 ▲생산공장 84 ▲생산능력 20,215천 $m^3$  ▲소비실적 14,539천 $m^3$  ▲전환률 20.5%(1964년 일본의 전환률 26%)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레미콘산업 실태를 하나의 표본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미래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의 레미콘산업이 심한 몸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전망 또한 지극히 어둡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레미콘 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레미콘산업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